

금당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지붕이 매력적인 금당(金堂) 건물은 원래 교토 중심부의 교토고쇼 내에 있었으며, 천황의 알현실로, 또한 국가 행사회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600 년대에 고쇼에서는 금당을 비롯한 교토고쇼 내의 몇몇 건물을 닌나지 절에 하사했습니다.

황실과 닌나지 절은 1000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깊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현재는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금당은 1000 년이 넘는 고쇼 건축의 역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건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53 년에 일본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당 내에는 다양한 불상이 놓여 있는데, 그 중심에는 찬란한 금빛을 휘감은 본존인 아미타여래상이 모셔져 있어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서방정토를 묘사한 벽화가 펼쳐져 있어 극락의 이미지를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서 남북 네 방향에는 각각의 정토가 있으며 각각 네 방위를 맡은 부처님이 있다고 하는데, 아미타여래는 그중에서 서방 극락정토를 맡은 부처님입니다.

닌나지 절은 ‘고도(古都) 교토의 문화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17 군데의 사적 가운데 하나입니다.